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격표지 대조 연구

Serikbayeva Zaripa(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어와 카자흐어를 대상으로 격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언어의 격표지 체계를 대조하여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어와 카자흐어가 언어유형론적으로 교착어에 해당하며, 계통론적으로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유사성을 지닌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유사성은 언어구조의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비록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계통론적으로 친족 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언어구조의 유형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며, 두 언어 사이의 유사성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조사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조사가 문장 안에서 격 기능을 나타내는지, 어휘적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크게 격조사와 보조사로 양분하고 있다. 격조사를 다시 크게 분류할 때 주격, 목적격, 부사격조사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부사격조사의 경우는 그 의미 기능에 따라서 다시 처격(위치격), 조격(방편격), 공격(비교격) 등으로 하위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 대상이 되는 격조사는 학교문법과 이에 바탕을 둔 남기심-고영근(2004, 개정판)에서 설정한 체계를 택하여 다음과 같이 세우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어의 격조사 체계에 따라 이 논문을 전개할 것이다.

(1) 한국어 “격조사”의 하위 분류: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호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카자흐어에는 격의 분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들은 모두 격어미로 실현되고 있다. 카자흐어의 격은 septik 이라고 불리는데 그 하위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카자흐어 “격어미”의 하위 분류: Ataw (주격, Nominative), İlik (속격, Genitive), Barıs (여격, Dative), Tabıs (대격, Accusative), Jatis (처격, Locative), Şıǵıs (탈격, Ablative), Kömektes (공격, Comitative).

카자흐어의 격어미를 통사적, 의미적 기능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기도 한다. 처소적 기능(local function)의 격 및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ction)의 격으로 대별된다. 문법적 기능의 격은 명사나 그 문장의 다른 성분과의 문법적 관계만 보여 줄 뿐, 어떤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기능이다. (2)에 제시한 Ataw(Nominative), İlik(Genitive), Tabıs(Accusative), Kömektes(Comitative)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처소적 기능의 격에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Barıs(Dative), Jatis(Locative), Şıǵıs(Ablative) 등이 있다.

2. 한국어의 격조사 체계

한국어 문법에서 격과 관련된 현상은 전통적으로 격조사나 자리토씨 개념으로 받아들여 왔다. 격이란 개념이 인구어의 곡용어미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¹

한국어의 격조사 실현 체계를 설정할 때에도 다양한 제안이 보인다. 임동훈(2004)

¹ 목정수(1998) 참조.

한국어의 격조사는 크게 문법적 조사와 의미적 조사라는 분류를 다룬다. 여기서는 문법적 조사에 ‘-이/가, -을/를, -의’가 속하며 이 문법적 조사는 의미적 관계와 무관한 통사적 관계를 표시한다고 제기한다. 의미적 조사는 위치나 도구 같은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며 ‘-에/-에게, -에서, -(으)로/로, -과/와’ 같은 조사들을 포함한다.

한국어의 격 체계와 격표지인 “격조사”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부사격조사의 경우, 그 의미 특성에 따라 편의상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주격조사	-이/가, -께서, -께서, -에서, -서
관형격조사	-의 (하나뿐임)
목적격조사	-을/를
보격조사	-이/가 (‘아니다’, ‘되다’ 앞의 체언에 붙음)
호격조사	-야, -여, -아, -이여, -시여, -이시여
서술격조사	-이다 (하나뿐임)
부사격조사	
- 장소	-에, -에서
- 수여	-에, -에게, -께, -한테
- 상대	-에, -에게, -한테, -더러, -보고
- 유래	-에서, -서, -(으)로부터, -서부터, -에게서, -한테서
- 향진	-에, -(으)로, -에게로
- 도구	-(으)로, -(으)로써
- 원인	-(으)로, -에
- 자격	-(으)로, -(으)로서,
- 공동	-과/와, -하고
- 비교	-과/와, -같이, -처럼, -만, -만큼, -하고, -보다, -에, -에서
- 변성	-(으)로
- 인용	-라(고), -이라(고), -고, -하고

〈한국어의 격조사〉

3. 카자흐어의 격어미 체계

카자흐어의 격어미 체계를 설명하기 전에 카자흐어에 대한 개괄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카자흐어는 카자흐 민족의 언어이며 카자흐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몽골, 중국 등 지역들에서 거주하고 있다. 카자흐어는 튀르크제어에 속한다. 튀르크제어 가운데 북서어족 혹은 킵착어족에 속하며 여기는 킵착-노가이 그룹에 속한다.

언어유형론상으로 볼 때 카자흐어는 교착어에 속하며 격범주는 다른 알타이제어와 마찬가지로 격표지에 의한 굴곡적 방법으로 실현되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카자흐어에는 격곡용은 접사로 실현되고 모든 접사들이 자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또는 카자흐어 문법에서 격 표지는 jalğaw 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jalğaw 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격어미라고 표시하기로 하였다². 카자흐어의 격표지인 “격어미”는 7 개의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 목록은 아래와 같다.

분류	어미
Ataw septik (주격, Nominative)	∅
İlik septik (속격, Genetive)	-niñ/-niň, -diñ/-diň, -tıñ/-tıň,
Barıs septik (여격, Dative)	-ğa/-ge, -qa/-ke, -a/e, -na/-ne
Tabıs septik (목적격, Accusative)	-nı/-ni, -dı/-di, -tı/-ti
Jatis septik (처격, Locative)	-da/-de, -ta/-te, -nda/-nde
Şıǵıs septik (탈격, Ablative)	-dan/-den, -tan/-ten, -nan/-nen
Kömektes septik (공격, Comitative)	-men(-menen), -ben(-benen), -pen(-penen)

〈카자흐어의 격어미〉

그리고 또 다른 형태적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현대 카자흐어에는 속격과 대격만 격표지에 의해 표시될 수도 있고 격표지가 생략될 수도 있다.

카자흐어의 격어미는 음운 환경에 따라 변이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카자흐어의 속격어미(İlik septik)는 -diñ(-diň, -tıñ/-tıň, -niñ/-niň)이다. 선행 모음이 강모음일 때는 -diñ, -tıñ, -niñ 을 결합하고 약모음일 경우 -diň, -tıň, -niň 을 결합한다. 위에서 제시된 표에서 볼 수 있고 이러한 변이형태가 모든 격에 해당된 것이다. 음운 환경에 따른 이러한 변이형태가 한국어하고 비슷한 점을 보인다.

카자흐어에는 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격의 후치사(septewlik şılaw)라는 문법범주가 발달되어 있다. 격의 후치사는 격을 지배하는, 형태 불변의 보조적인 품사들 중의 하나이다. 이는 접사와 함께 전반적인 문법적 의미를 확실히 하고, 분화하는 역할을 한다. 격 후치사는 항상 관계 있는 단어 뒤에만 온다.

격마다 각기 정해진 후치사를 지니고 있다. 카자흐어에는 처소적/공간적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대부분 후치사 없이 Barıs septik(여격), Şıǵıs septik(탈격), Jatis septik(처격)들은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처소적/공간적 기능의 격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카자흐어의 격의 기본적 기능을 밝힐 때는 형태론적 방식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의미론적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문장 내에 어떤 것이 목적어, 보어, 상황어인지를 파악할 때는 의미론적 방식 이외에는 질문의 성격도 중요한 것이다.

4.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격표지 대조

4.1. 주격 표지

한국어 주격조사는 체언에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이다. 주격조사에는 ‘-이/가, -께서, -께서, -에서, -서’ 등이 있다. ‘-이/가’일 경우,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면 ‘-가’가 쓰이고 자음으로 된 체언 뒤에서는 ‘-이’가 쓰인다. 음운론적으로 조건화된 변이형태 관계이다. 주격조사에는 또한 [높임]의 ‘-께서, -께서’, [단체]의 ‘-에서’, [셈]의 ‘-서’와 같은 특수한 형태가 있다.

² 카자흐어 문법에서 “어미(jalǵaw)”라는 것은 “접사(affix)”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주격조사>	<자질>	<예문>
‘-이/가’	[-높임]	철수-가 학교에 간다.
‘-께서’	[+높임]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립니다.
‘-께옵서’	[+높임]	폐하-께옵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서’	[+단체]	우리 학교-에서 이겼다.
‘-서’	[+셈]	너 혼자-서 어디로 가니?

한국어 조사는 반드시 문법 관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휘 관념도 함께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보조사와 관련된 것이다. 다음 예문에서 주격조사와 보조사의 관계를 고찰해 보겠다.

- (1) 철수-가 학교에 간다.
- (2) 철수-는 학교에 간다.

이 예문을 보면 (2)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쓰일 자리에 보조사 ‘-는’이 배정되었다. (1)에서는 주격조사 ‘-가’에 인해서 ‘철수’가 주어의 기능을 발휘하고 격의 기능이라는 문법적 관념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2)에서는 보조사 ‘-는’에 의하여 두 문장 의미 차이가 보이므로 이때의 ‘-는’은 [대조]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보조사는 대체로 어휘적 관념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사는 다음과 같이 [대조], [역시], [단독] 등의 어휘 관념을 가진다.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다(권재일 1996).

- (3) 철수-가 과일-은 먹었다
- (4) 철수-가 과일-도 먹었다.
- (5) 철수-가 과일-만 먹었다.

그리고 보조사와 주격조사에 관련 또 다른 예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체언+ 보조사+ 주격조사”의 결합이다.

- (6)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 (7) 오늘-까지-가 여름 방학이다.

한국어의 단문 안에서 격이 중출하는 예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현상을 “격 중출 현상”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관찰되고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이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조사 ‘-을/를’의 중출 현상이다.

이러한 개념 아래서는 주격 중출 구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상정할 수 있다.

- (8) 우리 아이-가 키-가 크다.
- (9) 한국어-가 발음-이 어렵다.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격조사의 생략 현상이다. 한국어에서 격조사는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조사가 생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략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대체로 문법 관념의 정도에 비례한다(권재일 1996). 한국어에서 담화적으로 격표지가 쉽게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0) 이 옷 어떠니?³

(11) 이 옷이 어떠니?

위의 예문에서 주격조사 ‘-이’에 의해서 문장의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에서는 옷을 단순히 지정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카자흐어의 주격 명칭은 Ataw septik (Nominative)이다. 그러나 한국어와 달리 카자흐어에는 일정한 주격표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카자흐어의 주격 형태는 어미가 없는 ∅-형태이다. 카자흐어의 주격은 격 형태의 기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형태는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본 형태로 다른 격이 형성하게 된다. 카자흐어 주격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문장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통사적 기능이다. 그리고 이는 주어의 기능 이외에는 주격 형태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격 형태가 수식어의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

(12) Çeolsw-∅	mektepke	bara jadır.
철수-가	학교에	가고 있다.

앞에서 고찰한 한국어의 주격조사와 카자흐어의 주격표지를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기로 하겠다.

(13) 철수-가	학교에	간다.
Çeolsw-∅	mektepke	bara jadır.

(14) 선생님-께서	칠판에	쓰십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십니다.)
Muğalim-∅	taqtağa	jazıp jadır.

위의 예문에서 두 언어에서 주격표지의 기능이 통사적 기능이며 주어 기능이라는 공통성이 보인다. 다만, 카자흐어의 경우 주격표지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카자흐어의 주격표지 실현은 다른 알타이어족의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형태로 이루어진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 조사 ‘-이/가’와 같은 격표지가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4)에서는 한국어에서 높임의 경우 ‘-께서’ 또는 ‘-께옵서’로 실현되나 카자흐어에는 높임의 표지가 따로 없으며 ‘-이/가’나 ‘-께서’나 구분이 없이 표시된다.

위의 제시된 예문에서 카자흐어의 주격은 특정 표지가 없는 무형태로서 명사의 기본 어형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명사의 특정 형태를 기본 어형으로 정해 주격이라 하지 않는다.

³ 김준기 2000에서 인용.

한국어의 주격표지는 위에서 언급된 보조사하고 관계가 있다. (2)에서는⁴ 주격표지 ‘-가’가 보조사 ‘-는’으로 배정되었다. 이 경우에는 (2)는 보조사에 의해 어휘적 관념을 가지게 된다. 이 문장은 [대조]의 뜻을 의미한다. 그러나 카자흐어로 해석할 때 이러한 현상이 없기 때문에 문장을 똑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다.

(6)과 (7)에서는⁵ “체언+ 보조사+ 주격조사”의 결합이다. 그러나 카자흐어는 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간에 격어미만 붙이며 격어미 앞이나 뒤에 다른 어미나 접사가 올 수는 없다. 다만, 명사 어간과 격표지 사이에 인칭 표지가 결합될 수 있다.

카자흐어의 격어미의 곡용과 한국어의 조사의 곡용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카자흐어에서는 특정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어미가 생략되거나, 다른 격어미가 쓰여서 그러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하나의 격어미 다음에 어떤 다른 격어미가 덧붙거나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특정 문장 성분으로 쓰인 명사구에 조사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조사가 쓰일 수도 있으며 그 조사의 앞뒤에 다른 조사가 덧붙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카자흐어의 격어미와는 곡용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두 언어의 주격 기능에 있어서 통사적 공통점이 보인 것이다. 즉, 두 언어의 통사적 기능은 주어 표지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카자흐어에는 주격 형태가 서술어, 수식어의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

4.2. 관형격표지

한국어의 관형격표지는 관형격조사 ‘-의’이다. ‘-의’는 체언에 붙어서 선행하는 체언으로 하여금 후행하는 체언을 관형어가 되게 하는 기능을 가진 표지이다. 그리고 한 체언이 다른 체언에 소속된다고 보아 속격이라고 한다. 또한 한 체언이 한 체언에 소유된다고 하여 소유격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관형격으로 보기로 하였다.

조사 ‘-의’의 문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를 관형격으로 보는 견해와 접속조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 조사 ‘-의’는 여러 언어 형식과 결합해서 뒤의 명사의 의미를 한정하고 또한 뒤의 명사와 더불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된다. 이러한 ‘-의’를 격조사의 하나인 관형격조사로 보아 왔다. 그러나, 격을 단순히 문장에 있어서의 지위로 보지 않고,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문장 성분이 이에 이끌리는 관계로 정립해서 판단해 본다면, ‘-의’는 격조사가 될 수 없다. 이 견해는 권재일(1989)에서 제기되었다. ‘-의’는 서술어에 직접 이끌리는 문장 성분에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격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권재일(1992)은 격을 서술어에 직접 및 간접으로 이끌리는 관계로 격의 개념을 문장성분의 개념과 함께 규정하고, 문장 성분의 관형어를 곡용으로 실현하는 관형격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어의 관형격조사는 “소유, 주제, 소속, 위치, 수량” 등의 다양한 의미 관계를 표현한다. 이를 예문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5) a. 소유: 영화-의 책.
b. 관계: 나의 어머니.

⁴ (1) 철수-가 학교에 간다.

(2) 철수-는 학교에 간다.

⁵ (6)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7) 오늘-까지-가 여름 방학이다.

- c. 주어를 나타냄: 나의 결심.
- d. 목표, 대상: 학문의 연구.
- e. 작가: 나는 김소월의 시를 좋아한다.
- f. 소속: 우리 부서의 김 대리가 사표를 냈다.
- g. 주체: 이제 남북한의 통일도 멀지 않았다.

위의 예문에서 관형격조사 ‘-의’는 어떤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 주고 두 명사를 “수식어+ 피수식어”의 통사적 관계로 묶어, 보다 큰 명사구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로 이해된다.

카자흐어의 속격은 İlik septik (Genetive)이라고 불리며, 명사 뒤에 -dñ/-dñ, -tñ/-tñ, -niñ/-niñ-을 결합하여 표시한다. 카자흐어의 속격어미는 한국어의 관형격조사보다 여러 다양한 음성적 변이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음성적 변이형은 다른 격들에도 물론 나타난다. 이 변이형은 앞 요소의 마지막 음절의 음운적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카자흐어 속격은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수식어 기능이다. 일정한 소유를 나타낼 때 속격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예를 들면, me-niñ kitabim (나-의 책)이다. 그런데 추상적인 소유 관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격어미 없이 실현된 것이다. 예를 들면, sïr eti (쇠고기)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어 ‘쇠-고기’(소의 고기)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카자흐어에서는 합성어가 아니라 “명사+ 명사”의 형태를 병치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소유 관계의 합성어 중에서 이와 같은 “명사-의 명사”의 구조로 구성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칼(-의)날, 새(-의)집, 국(-의)물, 낮(-의)빛 등).

카자흐어에서 속격표지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적 단어와 결합할 때 (확실화 필요성이 있을 때)
üstel-Ø üstinde (책상 위에)
2. 몇 개의 수식어가 같이 올 때
Qazaq-Ø ult-tıq wñiversiteti-Ø şıǵıstanw fakwlıteti-niñ koreytanw kafedrası
(카자흐 국립 대학교 동방학 대학의 한국학과)
3. 문장 안에 명사로 된 몇 개의 독립 수식어가 있을 때
Biz bügin qazaq-Ø, orıs-Ø, korey-Ø xalıq änderin tñdadiq.
(오늘은 저희가 카자흐, 러시아, 한국 전통 노래를 들었다.)

한국어의 관형격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카자흐어의 İlik septik(Genetive)이다. 카자흐어의 속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와 달리 여러 변이형을 가지고 있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식하는 기능을 하며 수식어어가 되게 하는 점이다. 아래의 예문에서 볼 수 있다.

(16)	이것은	철수-의	책이다.
	Bul	Çeolsw-dñ(Gen)	kitabı.

두 언어에서 격의 생략 현상을 검토해 보면 특히, 구어체에서 관형격표지의 탈락이 빈번하다는 것이 보인다. 이것 이외에는 위에서 살펴 보았던 것처럼 카자흐어의 생략 현상은

한국어와 유사하다.

- | | | | |
|--------|----------|----------|-------|
| (17) 그 | 학교-∅ | 건물이 | 좋다. |
| Ana | mektep-∅ | ğīmaratı | jaqsı |

한국어의 경우, 관형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관형격조사가 다른 격조사와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결합은 카자흐어에는 불가능하다. 격어미 앞이나 뒤에 다른 조사나 어미가 올 수가 없으며 다만 격어미 앞에 소유표지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bala-m(1 인칭 소유표지)-niñ(Gen)나의 아이의.

- (18) 영수-와-의 약속
- (19) 부산-으로-의 이동
- (20) 하늘-만큼의 큰 사랑

다음 예문에서는 ‘-의’는 특별한 의미 기능이 수행되지 않고 다만 수량사구와 명사구를 묶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카자흐어에는 이러한 용법을 볼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수사는 관형격어미로 실현되지 않는다.

- (21) 하나의 전통

4.3. 목적격표지

목적격조사는 선행하는 명사로 하여금 후행하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목적격은 목적격조사 ‘-을/를’에 의해 실현된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을’,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를’이 쓰인다.

- (22)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신다.
- (23) 철수가 시계-를 샀다.

그런데 목적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을/를’이 쓰이는 경우도 많다. 타동사문에서 하나의 동사에 대해 “명사+을/를”이 두 번 나타나서, 그 중의 하나는 진정한 목적어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중 주어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때의 어느 한 쪽은 목적어가 아닌 다른 성분이 표면에서 ‘-을/를’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 (24) 철수가 영화-를 옷-을 잡아 당겼다. (영화의)
- (25) 철수가 영화-를 아내-를 삼았다. (아내로)

‘-이/가’처럼 ‘-을/를’도 목적어 조사가 아니라 강조를 뜻하는 보조사로 사용될 수 있다. 카자흐어의 경우는 이러한 용법은 없고, 관련된 격어미만 붙게 되고 그 뒤에 한국어 문법이 허용하는 것처럼 다른 격이 붙는 현상이 없다.

(26) 난 지금 병원에-를 가야 해.

(27) 이 선생은 자리를 잠시-를 비우지 않는다.

한국어의 목적격에 카자흐어의 Tabıs septik (Accusative)이 해당된다. 카자흐어의 대격표지는 -nı/-ni, -dı/-di, -tı/-ti 어미를 결합하여 실현한다. 한국어의 목적격과 비슷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즉, 두 언어에서도 목적격표지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어의 대격의 생략은 어떤 개념이 추상적이거나 확실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략되거나, 대격이 어떤 정도의 상황어로 나타나는 주격과 결합될 경우 생략된다. 즉, 사물의 가격, 크기, 수량 등을 나타낼 경우에 생략된다.

(28) Äkem gazet-(ti-Acc) oqıp jatır.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신다.

(29) Ol eki kese şäy-Ø işti.
그는 두 잔 차(-를 Acc) 마셨다.

4.4. 부사격표지

부사격(Adverbial)은 어떤 체언이 문장 속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격이다. 부사격조사는 그것이 붙은 체언이 부사어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처소, 지향, 시간, 공간의 범위” 등을 나타내 주는 격으로 형태가 많다. 또한 “원인, 이유, 조건, 재료, 수단, 자격” 같은 여러 의미를 가진다. 한국어의 부사격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부사격조사의 종류 : -에, -에게/-한테, -에서, -(으)로, -부터, -까지, -처럼, -만큼, -보다, -와/-과

그러나 부사격은 카자흐어에는 볼 수 없는 격이다. 예문의 대조 분석을 통해 보이겠지만, 카자흐어에서는 다른 격이나 다른 문법범주로 실현될 수 있다. 한국어의 부사격에 해당하는 카자흐어의 격은 Dative, Locative, Ablative, Comitative 등이다. 한국어의 부사격조사의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카자흐어로 옮길 때 조사의 의미에 따라 위에서 제시된 격으로 실현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카자흐어의 여격어미(Dative, Barıs septik) 경우만 제시해 보겠다.

(30) 서울-에 도착했다.

Sewl-ge((Dat)) keldik.

(31) 우리는 학교-로 간다.

Biz mektep-ke((Dat)) bara jatırmız.

한국어의 부사격을 나타내는 조사들 중에 ‘-에’와 ‘-(으)로’는 동일격 역할을 하며 의미적 기능에 따라 동일 형태의 조사로 여러 뜻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30, 31)과 달리 (나는 칠판-에 글씨를 썼다)⁶라는 문장에서는 방향하고 도착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카자흐어에는 의미적으로 방향을 나타내고 여격어미로 실현된다.

⁶ 서정수(1996)는 이런 경우를 “위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치 지정이란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내는 지점만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32) 인간의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비슷하다.
Adamniñ ömiri	marafon	jarı-sı-na(Dat)		uqsas.
(33) 책을	철수-에게		주었다.	
Kitaptı	Çeolsw-ğa(Dat)		berdim(Dat).	

카자흐어의 여격어미(Dative, Barıs septik)는 탈격어미(Ablative, Şıǵıs septik)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의미가 다양한 격이다. 이 격은 어떤 동작의 처소적이고 시간적인 한계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고 동작의 마지막 도달, 한계, 목표, 원인을 나타내기도 한다.

5. 결론

그 동안 한국어와 카자흐어 두 언어의 격표지에 대한 대조 분석에 대한 연구는 그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언어의 격과 격표지의 특성을 밝히고 이들의 기능을 고찰하여 두 언어에 나타나는 격의 체계, 실현방법, 기능, 용법, 분포 등을 대조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고자 한 것은 대조언어학적으로 그 의의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인 한국어의 격조사를 카자흐어의 격표지와 대조함으로써 외국어 학습의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데에도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두 언어의 격표지에 대한 대조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하다.

첫째, 격표지 실현에 있어서 한국어는 조사로 표시되고 카자흐어는 격을 어미로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실현될 수 있는 조사가 매우 다양하고 하나의 조사가 여러 가지의 문법적 관계와 의미적 관계에서 쓰일 수 있다. 카자흐어는 격 분류 체계가 정해져 있으며 각 격어미가 해당되는 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어의 격어미는 음운 환경에 따라 음운 변이형을 지니고 마지막 자모에 따라 결합하는 특성을 지닌다.

둘째, 대표적으로 한국어의 주격, 관형격, 목적격표지가 기능적으로 카자흐어와 유사한 점을 지닌다. 그러나, 카자흐어에는 주격표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 격으로부터 다른 격이 형성되는 기본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언어에서 격을 형성하는데 격 생략 현상이 가능한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사 생략의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한국어는 격조사가 생략될 경우와 생략되지 않을 경우에 문장이 의미상으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카자흐어는 그러한 차이가 높지 않다.

셋째, 부사격은 한국어에서 가장 종류도 많고 의미도 다양한 편이다. 이런 면에서는 한국어의 부사격은 앞으로의 더 많은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카자흐어에는 부사격이라는 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나 부사격표지의 의미에 따라 여격어미(Dative), 처격어미(Locative), 탈격어미(Ablative), 공격어미(Comitative)에 일치하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

넷째, 한국어의 호격, 서술격, 보격표지는 카자흐어에서 실현되지 않고 다른 문법범주와 어휘범주로 실현된다.

다섯째, 격표지 형성에 있어서는 카자흐어와 달리 한국어는 여러 특징을 지니고 그 중에 격조사의 보조사로 교체하는 것과 보조사와 격조사의 결합이나, 격조사와 격조사의 결합 현상, 또는 격조사 중출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카자흐어는 교착적인 점이 한국어와 비슷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격은 정해져 있으나, 다른 접사들이 붙을 수 없다. 다만, 각 격은 일정한

후치사가 있어, 격표지가 후치사 결합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여섯째, 카자흐어와 달리 한국어의 격표지가 문법적 관념뿐만 아니라 의미적 관념을 나타내는 가능성의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 격조사들은 모두 같은 격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미 기능도 가지고 있다. 전형적으로는 격 기능이 강한 격들은 주격, 관형격, 목적격이고, 상대적으로 격 기능이 약하고 의미 기능이 높은 격은 부사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격 체계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대조 분석하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계통론적 관계, 언어유형론적 유사성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 언어의 개별적 특성들을 밝히는 데에 있어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 두 언어의 문법 특성을 더욱 정확히 규명하고,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두 언어 상호 간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더 발전된 학습 교재의 편찬, 조사 및 어미 사전의 편찬, 교수법의 개발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창수(1997), “한국어 조사결합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5 권번호, 한국어학회.
-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주)두산.
- 권재일(1989), “조사 성격과 그 생략 현상에 대한 기술 방법”, 《어학연구》 25-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1996), 《한국어 문법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김귀화(1994), 《국어의 격연구》, 한국문화사.
- 김승곤(1996), 《한국어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 도서출판 박이정.
- 김준기(2000), “격조사 의미 대하여”, 《어문학》 71, 한국어문학회.
- 남기심(1987), “국어문법에서 격(자리)은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가?”, 《애산학보》 5, 애산학회.
- 남기심, 고영근(2004),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탐출판사.
- 목정수(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언어학》 23, 한국어학회.
- 서정수(1996), 《국어문법》, 수정증보판, 한양대학교 출판원.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국어학회.
- 임동훈(2002), “한국어 조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 허웅(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고친판, 샘문화사.
- Bejsebaeva, K.A(1994),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ая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ов》 (러시아어와 카작어의 대조 문법), Almaty: Ana tili.
- Fillmore, C(1968), “The Case for Case”, in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ed. by E. Bach, R.T. Harms, New York.
- Isengalieva, B.A.(1961), 《Употребление падежей в казах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카자흐어와 러시아어의 격표지 사용), 인문과학아카데미.
- Kim Phil(2000), 《Грамма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현대 한국어의 문법), 국립카작대학교 출판사.